



양호한 국내은행의 대외신용도

채원영 연구원

■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¹⁾과 대북 리스크 부각²⁾에도 2012년 4월 말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여건과 유동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2012년 4월 말 현재 5년물 한국 국채 CDS프리미엄은 121bp로 전월 말 123bp대비 2bp 하락함.
- 단기차입 가산금리³⁾는 8.9bp로 전월 대비 6.4bp 하락하였으며 1년물 중장기 차입 평균 가산금리⁴⁾도 111bp로 전월 대비 26bp 하락하였음.
 - 반면 5년물 중장기 차입 평균 가산금리⁴⁾는 216bp로 전월대비 26bp 상승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은행의 채권발행 때문임.
- 국내은행의 단기 및 중장기 차입 차환율⁵⁾은 각각 95.5%, 68.9%로 모두 순상환을 보였으나 2012년 1~4월 중 중장기차입 차환율은 177.1%를 기록하였음.
 - 이는 국내은행들이 연초에 필요자금을 중장기로 선조달 하였기 때문임.

■ 또한 국내 은행의 외화건전성 비율은 금감원의 지도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2012년 4월 말 현재 3개월 외화 유동성비율은 107.6%로 지도비율 85%를 상회하였음.
- 1개월 갭비율⁶⁾은 2.4%로 지도비율 -10%보다 12.4%p 높게 나타났으며 7일 갭 비율은 1.7%로 지도비율 -3%를 4.7%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.

(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)

1) 4월 27일 S&P는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+로 두 단계 강등하였음.

2)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음.

3) 약정만기 2일~1년 이내 차입금, 한국씨티·한국SC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기준.

4) 약정만기 1년 초과 은행차입 및 채권발행, 한국씨티·한국SC·지방은행을 제외한 10개 국내은행 기준.

5) 차환율은 신규차입액을 만기도래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차환(Roll-over)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임. 차환율이 100%인 경우 만기도래하는 차입금만큼 신규로 차입했음을 의미함.

6) 7일갭 및 1개월 갭비율 = $\frac{\text{만기 7일(1개월)이내 외화유동성자산} - \text{만기 7일(1개월)이내 외화유동성부채}}{\text{총외화자산}}$